

<2014.02.19.~2014.02.20.>

## 천연기념물 황새, 고창서 발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선운산 인근에 출현

천연기념물 제199호 (1968.5.30.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

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며 “최근에 발생한 AI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이번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 천연기념물 황새, 고창 선운산에 출현

### 청정 자연생태 환경 주목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에 주로 서식하는,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철새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년 5월 30일 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돼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도 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기자

11.1 X 11.0 cm



## 전북중앙신문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가 고창 선운산 인근 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 천연기념물 제119호 황새 고창 선운산인근서 발견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

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준원기자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황새’ 출현

연화리 주민 “깨끗한 자연환경 입증한 것”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 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

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지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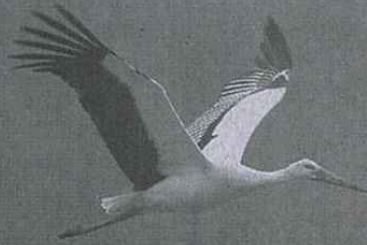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발생한 AI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이번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 새만금일보



### 천연기념물 황새 고창군 출현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년 5월 30일 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씨는 "근래에 보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 고창군, 천연기념물 황새 출현

###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

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AI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이번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종욱 기자



#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 황새 출현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선운산 인근 농경지서 발견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가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태완 기자

## 전주매일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청정환경을 찾아 갔들었나...

### 고창에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황새' 출현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지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도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AI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이번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라매일



### 고창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황새'

고 있는 황새의 모습. (사진=고창군 제공)

지난 19일 고창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인근의 들판 위를 날

## 고창 선운사에 천연기념물 황새 출현

### 청정 자연생태 환경 재 입증

고창군은 천연기념물 제199호 (1968.5.30.지정)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가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 고창군, 천연기념물 황새 출현

선운산 인근 농경지서 발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이름값'

천연기념물 제199호(1968.5.30.지정)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지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

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56730@DALUM.NET

## 광주일보



### 황새의 비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가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창군 제공〉



## <카메라뉴스> 고창 선운산서 황새 '날갯짓'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4-02-19 14:26 최종수정 2014-02-19 14:50



고창 선운산 찾아온 황새 '날갯짓' (고창=연합뉴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 한 마리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의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이 황새는 심원면 연화리 주민인 사진작가 김수남씨가 지난 18일 촬영했다. 2014.2.19  
doin100@yna.co.kr

(고창=연합뉴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의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 한 마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1m가량의 하얀 몸집에 붉은색 다리와 검은색 날개 깃을 가진 황새는 예로부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흔히 번식하던 텃새였으나 1994년 이후 국내에서 종적을 감췄고 겨울철에 천수만 등지에서 불규칙적으로 5~10마리가량이 발견되곤 한다.

이 황새는 고창 심원면 연화리 주민이자 사진작가인 김수남씨가 지난 18일 찍었다. (글=백도인 기자 사진=고창군청)

doin100@yna.co.kr

▶ 연합뉴스앱 ▶ 궁금한배틀Y

## 국제적 멸종위기종 '황새' 고창에 출현

기사등록 일시 : [2014-02-19 14:33:44]



【고창=뉴시스】 김중호 기자 = 19일 전북 고창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인근의 들판 위를 날고 있는 황새의 모습. 2014.02.19. (사진 = 고창군 제공)  
photo@newsis.com 2014-02-19

【고창=뉴시스】 김중호 기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에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황새'가 전북 고창에서 발견됐다.

고창군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새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로 알려져 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의 전통 민화나 자수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새다.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의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며 "최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이 돼 이번 AI 사태가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 인쇄하기

★ 다운로드

## 고창군, 천연기념물 황새 출현 군민에게 희망 전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정한 환경 찾아와

(아시아뉴스통신=이승희 기자)

뉴스일자: 2014년02월19일 15시39분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천연기념물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고창군 선운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사진제공=고창군청)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전북 고창 선운산 인근 농경지(심원면 연화리)에서 발견됐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66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조류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간혹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개체수가 극히 적어 쉽게 볼 수 없는 겨울 철새이다.

황새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을 상징하면서 우리민족과 친근한 새이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길조로 조상들이 전통 민화나 자수 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번에 황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새를 처음 발견한 심원면 연화리 주민 김수남 씨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황새가 우리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그만큼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이번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sisure@hanmail.net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